

Abelardo Morell

New York Bonni Berrubi gallery www.bonriberrubi.com



1. CD View Outside Firenze with Bookcase, 29 2. CD Central Park Spring, 2010

Camera Obscura Project 2010. 10. 07 ~12. 18

옵스큐라 obscura 어두운 방을 뜻

하는 이 카메라의 시초가 된 원리는 빛을 실내의 한쪽에 그곳에서는 볼 수 없는 외부 세계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뜻한다. 르네상스 이후 카메라 옵스큐라는 예술가들에게 정확하게 현실을 묘사하기 어려운 장면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기술이 발달하고 컴팩트한 카메라가 나오게 되면서부터 이 거대한 어두운 방은 책 속 이야기로만 전해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근래 첨단 기술에 역행해 과거로, 100년이 넘은 옛 기술을 작업의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Abelardo Morell도 이러한 현재의 방식보다는 오히려 예전의 좀 더 수공적인 사진에 가까운 작업을 보여주고 있는 작가이다. 사진작가 Abelardo Morell은 카메라 발명초기 사용되었던 카메라 옵스큐라 형태의 컨셉을 만들고 그 방 전체를 하나의 카메라로서 사용한다. 흰실 벽에 거러 이미지를 반전시켜 보여주는 형식의 새로운 카메라 옵스큐라 사진작업을 보여준다.

Morell의 작업의 주제가 되는 소요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그의 자살, 아들의 침실, 여행 중 호텔방 등이다. 닿을 수 있는 물체들로 가득한 현재의 방위에 그는 수 시간에 걸쳐 외부의 빛을 통해 들어오는 이





3. LO Brooklyn Bridge_Color_01 4. LO Central Park Spring_2010

이미지를 심어 놓는다. 그의 평범한 호텔 방 안에는 때로 여행업이나, 엔지니어 스테이트 빌딩과 도시의 상징들이 옮겨지게 되는 것이다. 작가의 still life의 작업에서는 평범한 사물들에서 보여지는 초현실의 분위기를 담아내었는데, Camera Obscura Project에서 또한 마찬가지이다. 실제에서는 불가능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의 작업은 추상과 재국의 예술개념에 도전하고 그 이미지의 기계적 재현성과 예술 이미지의 제작역사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0월 뉴욕의 한 갤러리에서 열리는 개인전에서는 <GROUNDWORK>라는 새로운 작업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미서부의 모래와 바람, 작감들로 국립공원에 자신의 텐트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촬영한 이미지들로 만상주의 회화에서 보여지는 분위기가 나는 사진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Abelardo Morell은 1948년 쿠바 하바나에서 출생해 뉴욕으로 이주했다. 예일대학에서 MFA를 받고 현재 매사추세츠 대학의 예술 교수로 있다. 그의 작품은 세계의 주요한 미술관과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다. 8권의 사진관련 서적을 집필하였고 현재는 MOMA에서 출판될 새로운 책을 위해 Rizzoli 섬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는 2013년 Art Institute of Chicago와 게티 박물관에서 전시를 가진 역경이다.

